축적되는 몸짓, 흩어지는 울림

이문정(미술평론가, 연구소 리포에틱 대표)

—아니야! 내가 외친다. / 난 굴복하지 않는다.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벌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파기할 수 있다. 나는 '무(Néant)'라는 단어를 붙잡고, 반대로 뒤집는다. 태어나기(Né en).[1]

보드랍고 포근하다. 따뜻하고 아늑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손끝이 아리는 감각이 스며든다. 익숙해진 통증. 반복 아닌 반복. 형상과 형상이 연결되고 이어진다. 감각과 감각이 만나고 헤어진다. 제자리에 고정된다. 마침표 없이 흐트러진다. 구멍-흔적이 생긴다. 이내 채워진다. 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물기 위해 생기는 상처. 근원은 무엇인지. 시작과 끝은 어디쯤인지. 목 안에서 시작해 온몸에 퍼지는 울림. 다가오는 흐릿한 멜랑콜리. 이내 번지는 심미적 생명력. 세상 일부의 수런거림을 벗어나는 고요한 안정. 김은정의 작업이 주는 인상, 감흥, 그리고 상념이다.

초기작인 <Alabaster Chamber>(2010), <Stairs to Green Canvas>(2011), <Urah>(2014)에서부터 <Oloyga>(2023), <Ethereal Breath>(2024)에 이르기까지, 작품 대부분에서 김은정은 천과 바느질을 이용해 왔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둥근 형태들 역시 조금씩 변용되어 등장하고 있다. 최근작이자 'Wall Sculpture' 시리즈인 <Maluma>(2025)와 <Soloya>(2025)는 천으로 볼록하게 만든 구-세포를 털실로 감싼 뒤 바탕천에 고정한 작품으로 바탕도, 형상도 올이 풀어진 것처럼 열린 모습이어서 세포 분열이나 진화를 앞둔 것 같다. 오랜 기간의 바느질로 완성된 두 작품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주변의 공간을 머금는 한 쌍의 작품, 한 몸처럼 존재한다. 작가는 "촉각적으로 포근한 세포들이" "공간 속에서 따뜻한 외침이자 메아리처럼 느껴지길" 기대했다.[2]

<Maluma>와 <Soloya>를 비롯한 김은정의 전 작품은 촉각을 극대화하는데, 감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근원적인 통로이다. 특히 촉각은 감각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한 시각과 다르다.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부터 감각으로 세상을 느낀다. 그중 온몸에 존재하는 촉각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 순간 경험된다. 어떤 감각보다 육체적이다. 작가는 천을 둥글리고, 푹신한 털실을 만지고, 바느질하며 작품에 촉각-감각을 축적한다. 시간과 시간, 손길과 손길 역시 켜켜이 쌓인다. 그렇게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조각이 완성되었다.

작가는 자기 몸이 가진 "고유한 운동과 감수성"을 통해 예술을 만들어낸다. 구체적, 직접적

---

[1] 엘렌 식수, 『아야이! 문학의 비명』, 이혜인(역), 워크룸 프레스, 2022, p. 25.

[2]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으로 몸을 재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김은정의 작품에는 육체성이 고조되어 있다. 창조적인 상상력은 몸을 통해, 즉 정신적이면서도 육체적인 역학의 작동을 통해 실재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예술적 관념은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몸 없이 창작은 불가능하다. 머릿속의 상상은 행위-노동에 의해, 손의 놀림에 의해 태어난다. 정신과 몸은 분리가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정신-내면과 이어지는 것만큼이나 감각과도 관계하고 둘 다를 동요시킨다. [3] 그래서인지,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도 몸의 작용을 중요시했다. 'Maluma(말루마)'와 'Soloya(소로야)'는 "입안에서 부드럽고 둥글게 굴러 나오듯 울리는 음성을 직접 만들어본 것"이다. 그다음 태양, 사랑의 의미가 적셔졌다.[4]

작가만의 단어이다. 입술-몸이 닫히고, 열리고, 소리를 불러낸다. 생각이 스며든다. 여운이 남는다. 잔잔하게 동그랗게 퍼져 나가는 울림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지만,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다. 통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는 작품을 새로운 맥락-관계에 놓이게 한다. 작가는 작품 앞에서 표현하기에 가까운 언어를 꿈꾼다. 그렇게 김은정은 표현하는 주체가 된다. 일상에서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 소통의 과정에서 쏟아지는 규범적 단어들을 비켜난 단어는 사회적 체계와 규범이 한정하는 영역을 벗어난다. 이미 모든 것이 규정되어 있던 순간을 앞지른다. 확장된다.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작품의 시간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시작할 때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글귀를 적어본다. 글이 어떻게 전개되든 적으려 했다. "당신에게 태양이 있기를 / 그리고 비도, 비가 필요하다면."[5]

2025 <감각의 서사> 전시 비평문

---

[3] 샹탈 자케, 『몸: 하나이고 여럿인 세계에 관하여』, 정지은, 김종갑(역), 그린비, 2022, pp. 342-343, pp. 351-352.

[4] 김은정, 작가 노트, 2025.

[5] 페르난두 페소아, 『오직 사랑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이준혁(엮고 옮김), 도서출판 고유명사, 2024, p. 68